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령회: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홍광철 세례자 요한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마태16,13)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마태16,13)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라는 신앙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에게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나 공통된 생각은 ‘특별하신 분’ “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분명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메시아이신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마태16,14)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는 사람들의 지대한 존경을 받았으며 하느님에 의하여 기적으로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다시 오리라 기대되고 있었습니다(말라4,5-6).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 역시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라는 추측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이 평가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보다 더 높은 명예를 거의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더 높은 명예가

내 주변에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생각을 바꾸어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일이면 깨끗한 복장으로 가족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모습, 이웃에 대한 배려를 잘 하고 언제나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답하고, 이웃의 불행을 방관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나도 성당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미사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월	오전 10:00
수/목/금/토	오전 10:00
화/수/목/금	오후 7:30

성사 안내

환자 봉성체	매달 첫 목요일 오전
병자성사	구역장을 통해 신청
성체강복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예비신자교육	(목) 오전 10:00 미사 후 (주일) 오전 8:20

학교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YG(고등부)	(주일) 오전 10:00
한국학교	(금) 오후 7:00 (토) 오전 9:30
안드레아 문화대학	(주일) 오후 1:00-4:00

예수님을 보지 않고 두려움을 바라본 베드로 사도

베드로사도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 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자 그는 물 속으로 빠져 들고 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센 바람을 보면서 공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마태14,30)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을 바라보면 불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몸을 가볍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걸어가시고자 하셨고, 물이 알아서 예수님을 받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그 힘이 “공명”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은 예수님과 연결된 “공명”을 깨뜨리게 되고, 물 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공명”할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공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마음을 품을 때는 그 공명은 깨지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과 공명하려고 노력할 때, 나 또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마태14,31)

누가 있어 바다 한 가운데서 오릇한 믿음으로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의심을 안 품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의심이 날 것



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의심만 품지 않는다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과 공명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순간도 의심 없이 오롯이 주님께 믿음을 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평상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물 위를 걷는 중에 별의 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내 안에 조금이라도 불신이 남아 있지 않도록 몰아내고 믿음으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

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 “주님! 제가 제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을 몰아내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마태14,33)

제자들의 기쁨과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렇듯 크신 하느님의 아드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다.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둘 때, 주님을 잊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네 믿음이 참으로 장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비를 청하는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 고장에 사는 어떤 가나안 부인이 예수님께 자비를 청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마태 15,22)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녀의 딸은 지금 마귀가 들려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비를 청하며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 질렀다.”는 표현을 통해 이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님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애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비를 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청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바라봅시다. 이방인 여인에게에는 예수님만 보였는데, 내 눈에는 누가 보이는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내 눈에는 주님만 보이고, 주님 눈에는 나만 보일 수 있도록 살아가봅시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분들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도 아이의 구원을 위하여 굳은 믿음을 보이고, 자비를 청했습니다.

결국 이 이방인 여인은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녀의 딸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처럼 끊임없이 간청할 때,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 어떻게 주님께 청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으니, 이 여인처럼 주님께 매달려 봅시다.

전신자 실천사항

- 첫째, 하루 한 번 감사드리기
- 둘째, 행동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찾기
- 셋째, 내가 먼저 인사하기

사목지표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들”

공동체 소식

◆ Sunday School, YG 등록

- 개학일 : 9월 17일
- 접수 마감일 : 9월 3일
- 대상 : Pre K(만 4세)~ 8학년/ YG 9학년 ~12학년
- 등록비 : \$70
- 문의 : 주일학교 교사, 본당수녀

◆ 첫영성체반 모집

- 대상 : 첫영성체반 : 3학년
- 고학년 첫영성체반 : 4학년~ 8학년
- 부모 첫 모임: 9/ 24 오전 10시 성가대방
- 문의 : 박선영아녜스 수녀

◆ 한국학교 1학기 학생 모집

- 개학일 : 2017년 9월 15일(금요일), 16일(토요일)
- 접수 마감일 : 9/3 (토)
- 등록비 : \$200, 신입생 등록비 \$10별도
- 신입생 학급 배치 고사 : 9/15(금) 오후 6-7시, 한국학교 사무실
- 보조교사 신청 마감일 : 9/16 (토)
- 문의 : 학교 (206-362-2278)
sakks10@gmail.com
- 신청 : 김송아 선생님 425-773-8597
박 선영아녜스 수녀

◆ 문화대학 가을 학기 수강 신청

- 문화대학 가을학기 수강신청 받습니다.
- 개강일 : 2017년 9월 10일

◆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

- 날짜 : 9월 16일(토)
 - 주최 : 한인생활 상담소
ACRS, King County 한인 변호사협회 찬조
 - 문의 : 425-776-2400
한인 생활 상담소
- 워크샵에 참석하시어 많은 정보와 무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례상식

구원(salvation, 救援)

“도와 건져 준다”로 풀이되는 구원이란 말은 누가 남을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아울러 먼저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보다 나은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과 마음의 위안을 제공하는 양면이 있는 동시에, 건져주는 이와 건져진 이가 서로 불가결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행위를 표현하는 말은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살린다”

라는 동사가 상황의 긴박함을 잘 말해 주는 바와 같이, 구원은 인생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와 관련됩니다. 자신의 마귀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 주님께 구원을 청하는 이방인 여인은 자신의 딸의 치유와 함께 자신 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딸의 치유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역사 안에서 당신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니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수위권(首位權, primacy)

모든 주교 가운데 제1의 지위인 교황이 가진 권한을 수위권이라 합니다. 이 수위권은 교회의 창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권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교회의 반석이라 부르고,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마태 16,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수위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고 세 번씩이나 당부하셨습니다(요한 21,15-17). 이러한 베드로의 수위

권은 그를 계승한 후임 교황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수위권에 대한 교리는 제2차 리용 공의회(1274년), 피렌체 공의회(143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년)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규정되고 확인되었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에 따라 성 베드로가 전 교회에 대해 수위권을 가지고, 그것은 후계자들에게 영속적으로 계승된다.”고 발표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은 이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로마의 주교가 수위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견해로는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로서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그곳에서 죽었으며, 로마의 주교들은 베드로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의 질서를 보존해 왔다는 것으로, 이 견해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주교가 수위권을 갖는다는 사실은 사람이 정한 바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한 바라고 합니다. 교황은 전교회와 신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고, 교회의 규율과 통치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